



확통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

오르비 수학강사- 명구 T

확통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

1. 확통을 대하는 자세

1. 가면 갈 수록 쉬워 지는 경향이 있음.(초반 내용이 가장 어렵다.)
2. 어느 정도의 '감각'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평소에 감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 3~5 문제 정도는 필수로 풀어야 한다.
3. 일일이 경우를 전부 따져 보는 연습도 해보자!
4. 문제를 매우 꼼꼼히 '관찰' 해야 하며 스스로 예시를 들어 보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.(like a 수학 2 수열)
5. 무조건 어려운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.(문, 이과 상관없이 학생들 입장에서 난이도가 높은 확통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.)-등안시 하지 말자!
6. 꼭 절대적인 풀이는 없다. 여러가지 풀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문제를 보더라도 여러 풀이를 떠올리는 연습을 하자!(양 x, 질 o)
7. 문제를 볼 때 제한을 먼저 살피자!

2. 순열과 조합 및 확통 problem

1. 언제 어떤 것을 쓸지 모른다.
2. 자신의 답에 확신이 없다.
3. 주관식으로 나오면 정답률이 확 떨어진다.
4. 입체적인(=다양한) 생각을 못 한다.
5. 순열과 조합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안 나올 것이라 단언한다.

3. 순열과 조합 및 확통 Soluitor

1. 수능에서는 친절하게 무슨 개념이 쓰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. 연습할 때 뭐가 쓰인 줄 모르고 연습을 많이 하자.
2. 전혀 모를 때는 개념 10 개(곱셈법칙, 덧셈법칙, 수형도, 자연수의 분할, 순열, 중복순열, 조합, 중복조합, 원순열, 집합의 분할) 중 쓰인 개념 한 개 이상이라고 생각하여 소거하며 생각한다.
3. 항상 주관식이라 생각하고 풀자.

확통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

4. '감각' 유지를 위해 하루에 적어도 3~5 문제는 풀자.

4. 강의 목표

“ 어떤 상황에서도 정답의 확신을 갖으며, 정확히 어떤 개념들이 쓰였는지 판별! “

5. 컨텐츠

1. 순열과 조합 (1)-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쓸까?
2. 순열과 조합 (2)- 중복조합 vs 중복순열

[PartⅡ] 순열과 조합-개념정리

1. 곱셈법칙 및 합의법칙 언제 사용할까?

1) 합의 법칙

- 각 사건의 계산 구조가 다를 때 덧셈을 한다.(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발생)
- 케이스 분류의 관점
- 결과가 다를 때(=결과가 겹치지 않을 때) 사용
- 문제에 “또는” 이란 말이 들어갈 때 사용

EX)

1) 값은 5000 원짜리 지폐 1 장과 1000 원짜리 지폐 6 장, 500 원짜리 동전 5 개를 가지고 있다.

6500 원짜리 물건을 사려고 할 때, 지불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해라

2) 1 부터 20 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2 의 배수 또는 3 의 배수의 개수를 구해라!

2) 곱셈 법칙